

국회 8급 국어 - 가책형

8월 14일 국회사무처 8급 국어 문제 해설 및 강평-이재현 교수 (hohosam.com)

국회직 국어는 항상 문제가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올해 국어문제도 제한된 시간 안에 정답을 골라내기에는 버거운 문제였습니다. 국어 문제 자체로는 아주 좋은 문제이지만, 7과목을 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골고루 전 범위에서 출제되었지만, 특히 글 읽기 실력이 일단 뒷받침이 되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눈에 띄이는 점은 문법 기초 지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ㄹ탈락, 언어의 의미 변화, 품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문법파트에서 불필요하게 깊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법적 이해를 기본으로 한 '직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문장 고르기가 까다로워서 학생들에게 점수를 잃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문학 문제에서 어려운 고전문학 지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지용의 현대시 '조찬'은 학생들이 풀기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한자 독음 달기 문제는 골고루 출제한다는 의도로 출제한 것 같은데, 난도는 쉬워서 학생들이 무난히 답을 골랐습니다. 기미선언서 전체를 한자로 출제한 부분에서 학생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공개된 이 문제로 자신의 평소 국어 실력을 가늠해 보는 자료로 쓰면 적절하겠습니다.

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와 같은 한자가 사용된 것은?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마는 나는 ( )을(를)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 )만 하고 싶어요.  
( )하고 싶은데 ( )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 )하라면, 그것만은 (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 )하려면 당신에게 ( )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 ① 의복(衣服)을 수선(修繕)하다.
- ② 군대(軍隊)에 복귀(復歸)하다.
- ③ 의견(意見)을 종합(綜合)하다.
- ④ 복안(腹案)을 준비(準備)하다.
- ⑤ 참석(參席)을 종용(慫恿)하다.

2. 다음 중 ㉠과 ㉡의 특성을 보이는 단어를 옳게 연결한 것은?

언어도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멸(生滅)의 과정을 겪는다. 특히 의미는 음운이

나 문법구조보다 변화가 많은 데 그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논의된다. 의미 영역의 변화와 의미에 대한 평가의 변화가 그것이다. 의미 영역 변화에는 변화 전에 비해 의미가 축소되는 경우와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를 ㉠의미의 특수화, 후자의 경우를 의미의 일반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미 평가 변화는 ㉡타락적 변화와 개선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의미 변화의 결과로,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발생한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의미가 없어지거나 새롭게 긍정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① 거래 - 영감
- ② 늪 - 마누라
- ③ 영감 - 장인(匠人)
- ④ 늪 - 장인(匠人)
- ⑤ 거래 - 마누라

3. 다음 글의 내용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백남준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1960년대 독일에서 ‘동양에서 온 문화 테러리스트’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활동해 온 것을 고려하면 한참 늦은 편이다. 국내의 미술 평론가들은 1980년대 말 까지도 “백남준의 작품은 어린애 장난이지 예술작품이 아니다”는 식의 혹평을 공공연히 퍼부었다.

그러나 백남준은 세계 예술사에 한국인의 이름을 등재시킨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한 명의 예술가가 아니라 비디오 아트라는 한 장르의 창시자다. 세계 유수의 미술관들이 빠짐없이 그를 초청했으며, 베니스 비엔날레는 그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백남준의 유작 ‘US 맵’과 ‘메가트론 매트릭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영구 전시된다. 당분간 백남준을 능가하는 예술적 부피와 경력을 가진 한국 예술가가 나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파리와 뉴욕을 연결한 인공위성 프로젝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백남준의 출세작으로 꼽힌다. 인류가 매스미디어에 종속되어 1984년에 멸망할 것이라는 소설가 조지 오웰의 예언에 대해 바로 1984년 첫 아침에, 아직도 우리는 건재하며 매스미디어는 우리에게 엄청난 연대 의식을 선사하고 있다는, ( ㉠ )이/(가) 섞인 문안 인사를 올린 것이다.

독일에서 그는 1960년대를 뒤흔든 플럭서스 운동에 동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부수는 행위, 관객의 넥타이를 자르는 행위, 객석에 소변을 보는 행위, 소머리를 전시장에 걸어 놓은 행위 등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를 잇달아 선보였다. 그는 서구 문화에 도취하거나 모방하기에 급급한 대다수 동양 유학생들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기성 예술을 공격했으며, 예술가들이 대중문화의 침병이라며 외면하는

TV를 주목했다.

- ① 플럭서스 운동은 비디오 아트의 정신적 자양분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비디오 아트의 철학적 이념은 '인간화된 기술', '인간화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백남준의 충격적 퍼포먼스에는 예술적 권위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백남준의 예술 세계는 예술과 관객의 소통을 지향하고 있다.
- ⑤ ㉠에는 '경외', '감탄' 등의 단어를 넣을 수 있다.

4. 다음 (가)의 내용이 들어가에 적당한 곳을 (나)에서 찾으시오?

(가)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의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懲辦을 暇치 못하노라.

(나)

二千萬 各個가 人마다 方寸의 刃을 懷하고, 人類通性和 時代良心이 正義의 軍과 人道의 干戈로써 護援하는 今日, 吾人은 進하야 取하매 何強을 挫치 못하랴. 退하야 作하매 何志를 展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 以來 時時種種의 金石盟約을 食하얏다 하야 日本의 無信을 罪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는 講壇에서, 政治家는 實際에서, 我 祖宗世業을 植民地視하고, 我 文化民族을 土昧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 뿐이오, 我的 久遠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려 안이 하노라. ㉡今日 吾人の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的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로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政家의 功名的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然, 又 合理的 政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的 要求로서 出치 안이한 兩國併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和 統計數字上 虛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 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없는 怨溝를 去益深造하는 今來實積을 觀하랴. 勇明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 新局面을 打開함이 彼此間 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 ① ㉠                      ② ㉡
- ③ ㉢                      ④ ㉣
- ⑤ ㉤

5. 다음 밑 줄 친 부분의 어휘 사용이 옳은 것은?

- ① 사막의 날씨는 식물의 성장에 적당하지 못하다.
- ② 순순히 잘못을 시인하는 그의 태도가 웬지 미심쩍다.
- ③ 우리의 인생에서 경쟁은 불가결한 것이다.

- ④ 외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기로 하고 나니 마음이 놓인다.
- ⑤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6. 다음 정지용의 시 '조찬(朝餐)'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사살 피어  
이윽한 후,  
  
머흘 머흘  
골을 읊기는 구름,  
  
길경(桔梗) 꽃봉오리  
흔들려 씻기우고.  
  
차돌부더  
축 축 죽순(竹筍) 돋듯.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  
  
앉음새 갈히여  
양지 쪽에 쪼그리고,  
  
서러운 새 되어  
흰 밥알을 쫓다.

- ① 경재: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친 아픔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군.”
- ② 광수: “‘길경’, ‘물 소리에 이가 시리다’에서 보듯 초봄의 정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
- ③ 제민: “제4연은 처마 밑 섬돌에 튀는 낙수(落水)의 모습을 그린 생생한 비유지, 대단해!”
- ④ 하경: “끝 연의 ‘서러운 새’는 시인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시적 대상이야.”
- ⑤ 예린: “1941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암울한 상황에 놓인 지식인의 초상화로도 보여.”

7.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이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찾을 줄 모르니 딱하기 그지없다. 사람이 닭이나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 알되, 잃고서는 찾을 줄을 모르니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 )을(를) 찾는 것일 뿐이다.

- ① 仁義
- ② 人生
- ③ 心路
- ④ 道理
- ⑤ 放心

8. 다음 글은 미괄식으로 짜여진 하나의 단락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를 논리적 흐름에 맞게 재배열한 것은?

(가) 그리고 수렴된 의도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나) 민주주의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낀다.  
 (다)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의 민주 제도는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라)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는 서구 각국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그러하다.  
 (마) 우리의 의식 또한 확고하게 위임된 책임과 의무를 깊이 깨닫고, 민중의 뜻을 남김없이 수렴하여야 한다.  
 (바) 민주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 자체에서 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① (나) - (다) - (바) - (가) - (라) - (마)
- ② (나) - (바) - (다) - (라) - (마) - (가)
- ③ (나) - (라) - (바) - (다) - (마) - (가)
- ④ (나) - (라) - (마) - (가) - (바) - (다)
- ⑤ (나) - (바) - (마) - (다) - (라) - (가)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문장은?

- ① 같은 값이면 좀 더 큰 것을 달라고 해라.
- ② 나는 친구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 집이 큰지 작은지를 아는 사람은 철수 뿐이다.
- ③ 진수는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떠났지만 집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나서는 걸 곳마저 없었다.
- ④ 경진은 애 쓴만큼 돈을 받고 싶었지만 주위에서는 그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 ⑤ 김영희여사는 항상 정장을 입고 외출한다.

10. 다음 중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이 두 가리
- ② 장작 한 바리
- ③ 오이 두 거리
- ④ 조기 여덟 손
- ⑤ 북어 일곱 패

11. 다음은 의성어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는?

의성어의 품사는 부사이고 기능상으로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성분부사이다. 성분부사는 문장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로서, 의성어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형용사에 비해 동사는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사나 형용사의 수식어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① 구슬들이 왁다글닥다글 부딪치며 굴러갔다.
- ② 그 여자는 철썩 남자의 뺨을 때렸다.
- ③ 철수는 따르릉 소리에 잠을 깨었다.
- ④ 순이가 목을 놓아 엉엉 울었다.
- ⑤ 시냇물이 졸졸 흐른다.

12.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등장하는 ‘화살’과 ‘시위’의 비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때 기주성을 완전히 점령한 여러 장수들이 달려와 조조에게 성 안으로 들기를 청했다. 조조가 막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창칼을 든 군사들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끌어왔다. 조조가 보니 바로 진림이었다. 전에 원소 아래에서 조조를 꾸짖는 저 유명한 격문을 쓴 적이 있어 그 죄를 크게 본 군사들이 특히 사로잡아 끌고 오는 길이었다. “그대는 전에 격문을 쓰면서 나의 죄만을 따질 것이지 어찌하여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까지 욕이 미치게 했는가?” 조조가 짐짓 매서운 얼굴로 물었다. 진림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화살은 시위에 올려진 이상 날아가지 않을 수 없는 법입니다.” 진림의 그 같은 대답에 조조를 둘러싸고 있던 장수들이 먼저 술렁거렸다. “저 자는 원소를 위해 승상의 조상까지 욕한 자입니다. 죽여서 본보기를 삼아야 합니다.” 장수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권했다. 그러나 조조는 진림의 글재주가 아까웠다. 잠깐 생각하다 조용히 물었다. “나는 너와 너의 글을 이번에는 내 활 시위에 얹으려 한다. 원고를 위해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주겠느냐?”, “승상께서 써 주신다면 재주를 다해 받들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니 조조는 그를 용서하고 종사로 삼았다.

<화살> - <시위>

- ① 격문 - 채주
- ② 원소 - 진림
- ③ 목표 - 상황
- ④ 진림 - 원소
- ⑤ 채주 - 격문

13. 다음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자아의 복합적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 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이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뇌이듯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에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킁킁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킁킁대면서  
킁킁대면서



- ③ 가, 다, 마
- ④ 나, 다, 라
- ⑤ 나, 다, 라, 마

16. 다음 글의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은?

(가)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인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나) 객창한등(客窓寒燈)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잡은 무슨 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 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중략) 어쨌든, 그믐달은 가장 정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한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 준다.

(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라)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 버리는 초승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마)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과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승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 ① (가) - (라) - (마) - (나) - (다)
- ② (가) - (마) - (나) - (라) - (다)
- ③ (가) - (다) - (나) - (라) - (마)
- ④ (가) - (마) - (라) - (나) - (다)
- ⑤ (가) - (나) - (다) - (라) - (마)

17. 다음 중 어휘의 사용이 적절한 문장은?

- ① 당신은 이제 홀몸이 아니고 만삭이 몸이니까 조심해요.
- ② 이 아이는 큰 병원으로 빨리 후송해야 됩니다.
- ③ 남의 일에 함부로 알은체하지 마라.
- ④ 이 사건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다.
- ⑤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당겼다.

18. 다음 글의 진술 방식과 같은 것은?

고릴라의 뒷다린 듯 싶게 오금이 굽고 발끝이 밖으로 벌어진 두 다리 위에, 그 놈 등 뒤로 흑이 달린 짧은 동체(胴體)가 붙어 있고, 다시 그 위로 모가지는 있는 등 마는 등, 중대가리로 박박 깎은 박통만한 큼 머리가 괴상한 얼굴을 해 가지고는 올라 앉은 양은, 하털없이 세계 풍속 사진 같은 데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토템이다. 그는 체격과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지금 삼십이로되, 사십도 더 넘어 보인다.

- ① 영화는 스크린이라는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흐르는 예술이며, 연극 또한 무대라는 공간 위에 시간적으로 형상화된 예술의 한 분야이다.
- ②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움직이므로 다른 동력 장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발동기의 힘으로 바퀴를 돌려 움직이므로 발동기를 움직일 비용이 필요하다.

③ 날씨가 좋고 바람도 없이 더운 한낮 가까운 때, 매미의 노래는 수초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짧은 휴식으로 끊어진다. 다음 마디는 갑자기 시작되고 높아져, 아랫배를 빠르게 진동시키며 최고음에 이른다. 수초 동안 같은 세기를 유지한 뒤에 점차 약해져서 떨리는 소리로 변하고…….

④ 최 상병은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적의 기관차를 수류탄으로 폭파시켰다. 최 상병은 기관차를 향하여 철모를 힘껏 내던졌다. 순간, 기관차 속으로 자동 화기의 연발 총성이 십여 발 엉뚱한 방향으로 요란하게 울렸다. 그는 엉겁결에 머리를 풀 속에 묻었다.

⑤ 지붕은 어떤 자재를 써서 지붕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새 지붕, 너새 지붕, 너와 지붕, 굴피 지붕, 초가 지붕, 기와 지붕으로 나뉜다. 형태에 따라서는 맞배 지붕, 팔작 지붕, 우진각 지붕, 사모 지붕, 약모 지붕…….

19. 다음 한자어의 독음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遊說(유세) - 破綻(과정) - 示唆(시사) - 障礙(장애)
- ② 墮落(타락) - 爆擊(폭격) - 奢侈(사치) - 懈怠(나태)
- ③ 被襲(피습) - 叱責(힐책) - 斡旋(알선) - 携帶(휴대)
- ④ 遷至(답지) - 刮目(괄목) - 歪曲(왜곡) - 洞察(통찰)
- ⑤ 標紙(표지) - 賂物(뇌물) - 看做(간고) - 捕捉(포착)

20. 다음은 ‘처용가(處容歌)’의 일부이다. 이에 사용된 차자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東京明期月良    | 시불 불기 드래  |
| 夜入伊遊行如可   | 밤 드리 노니다가 |
| ⋮         | ⋮         |
| 本矣吾下是如馬於隱 | 본디 내해다마른  |
| 奪叱良乙何如爲理古 | 아사늘 엇디흐릿고 |

- ①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이용하였다.
- ②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표기에서 출발하였다.
- ③ 국어의 어순을 따르고 다양한 어미를 사용하였다.
- ④ 실무적인 행정 기록은 물론 시가 등 운문에도 사용되었다.
- ⑤ ‘奪叱良乙’은 훈차(訓借)이고, ‘何如爲理古’는, 음차(音借)이다.

21. 다음 글은 시제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옳게 설명한 것은?

시제(時制)란 화자가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앞뒤의 시간을 구분하는 문법 범주이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에 선행하면 과거, 발화시가 사건시에 선행하면 미래라고 한다. 발화시란 화자가 문장을 발화한 시간을 뜻하고 사건시란 문장에 드러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뜻한다.

그런데 시제에는 절대시제와 상대시제도 있다. 절대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 시제이고 상대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를 말한다.

<보기>  
나는 아까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철수를 보았다.

- ①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현재
- ② 절대시제나 상대시제 모두 과거
- ③ 절대시제로는 현재, 상대시제로는 과거
- ④ 절대시제로는 과거, 상대시제로는 현재
- ⑤ 절대시제로는 과거, 상대시제로는 미래

22. 단어의 어원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달’은 불교에서 음악의 신(神)인 ‘건달바’에서 유래했다.
- ② ‘멍텅구리’는 ‘뚝지’라는 물고기의 별칭에서 유래했다.
- ③ ‘가시버시’는 남편을 뜻하는 ‘가시’와 아내를 뜻하는 ‘버시’가 합쳐진 말이다.
- ④ ‘인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는 뜻의 ‘人生世間’이 줄어서 된 말이다.
- ⑤ ‘갈매기살’은 돼지의 횡격막(橫膈膜) 살, 즉 ‘가로막살’에서 유래했다.

23. 다음 중 같은 음운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로 묶이지 않은 것은?

- ① 여자(女子), 유대(紐帶), 여유(餘裕)
- ② 찰랑찰랑, 칠렁칠렁, 줄줄, 줄줄
- ③ 바느질, 소나무, 따님
- ④ 해돋이, 굳이, 만이
- ⑤ 밥물, 섭리, 국민

24. 다음 글의 단어 중 같은 품사끼리 묶이지 않은 것은?

혼례는 끝이 났다. 맥이 풀린 듯 뉘 빠진 사람처럼 송씨는 마루에 걸터앉아 있었다. 봉제 영감은 사랑에서 손님들과 술을 나누고 있었고, 봉희는 지쳐버린 신부에게 국수를 먹이면서 옷매무새를 고쳐준다.

성수는 일찍부터 보이지 않았다. 지식원은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나섰다. 문둥이들도 술이 취해서 신나게 문둥이 타령을 하며 춤을 추고 갔다.

“억울합니다. 이씨, 오래오래 사이소.”

지식원은 대문 밖에서 고함을 친다.

- ① 명사 : 맥, 듯, 춤
- ② 동사 : 걸터앉아, 지쳐버린, 추고

- ③ 형용사 : 거나하게, 억울합니다.
- ④ 부사 : 일찍, 신나게, 오래오래
- ⑤ 조사 : -는, -처럼, -부터

25.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우리가 사는 지구는 쓰레기에 덮이고 오염에 찌든 몸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 ②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백 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③ 부채비율 축소나 계열사 정리 등에 여력이 없는 재벌이 당장 공기업 쪽에 눈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 ④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정부는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2010년 8월 14일 국회사무처 8급 기출문제 해설 hohosam.com

1. 정답 ①

주어진 시 지문은 한용운의 '복종'이다. 服從(복종할 복, 따를 종)이므로 ①이 답이다.

<服>

|         |                                    |
|---------|------------------------------------|
| ㉠ 복종할 복 | (예) 服從(복종), 承服(승복), 屈服(굴복), 降服(항복) |
| ㉡ 옷 복   | (예) 學生服(학생복), 制服(제복), 校服(교복)       |

2. 정답 ②

|      |            |                               |
|------|------------|-------------------------------|
| 특수화  | 놈          | 일반적 남자에서 비속어로 의미가 줄어든 경우      |
| 일반화  | 겨레, 영감, 장인 | ㉠종친→민족 ㉡당상관→남자 노인 ㉢기술자→예술가 전체 |
| 의미타락 | 마누라        | 귀족을 가리키는 말에서 → ‘아내’의 낮춤말      |

3. 정답 ⑤

㉠에 들어갈 구절로는 ‘조롱’이 적절하다. 백남준이 ‘조지 오웰’을 ‘비꼬는 의도’로 창작한 작품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4. 정답 ②

기미선언서 중에서 중간 부분인데, ‘독립선언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책임’이 주제이다.

(가)부분의 해석: ‘자기를 채찍질하기에 급한 우리는 일본을 원망할 틈이 없다. 현재를 준비하기에 급한 우리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따질 틈이 없다.’

일본을 원망할 틈이 없다는 말로 보아, 그 앞에는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구절이 와야 하므로 ㉡이 적절하다.

5. 정답 ④

④ 숙식을 **부치다**: 먹고 자는 것을 제 집이 아닌 곳에 의지하다

<해설> ① 식물이 자라는 것은 ‘생장(生長)’으로 써야 한다. ② 웬지(=왜인지) ③ 불가피(不可避): 불가결(不可缺)은 ‘뺄 수 없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의 의미를 넣어야 한다. ⑤ ‘시키다’를 ‘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하다’를 쓰는 게 옳다. → ‘교육하는’으로 고치자.

6. 정답 ②

‘길경’은 ‘도라지’인데, 도라지꽃은 여름 7,8월에 피는 꽃이다. 초봄의 정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다.

7. 정답 ⑤

맹자의 글이다. ‘방심’이란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를 말한다.

學問之道(학문지도)는 無他(무타)라. 求其放心而已矣(구기방심이이의)니라.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방심(放心)을 구하는 데 있다.

8. 정답 ③

순서 배열 문제는 철저히 보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모든 보기가 (나)이므로 일단 (나)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으로는 (나) 다음에 (다)를 제시한 ①을 먼저 제외한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엉뚱한 (다)를 제시하는 ④를 제외한다. 그러면 (나) 다음에 이어질 구절만 찾으려면 되는데, (나) 다음에 바로 (바)가 오기보다는 중간 설명이 들어간 (라)가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답은 ③이 된다.

9. 정답 ①

① 단음절이 계속 이어지면 둘씩 묶어서 붙여 쓸 수 있다. ‘좀 더 큰 것’ → ‘좀더 큰것’으로

쓴 것은 맞다.

<해설> ② 철수(명사)+ 뿐(조사)+ 이다(조사) : ‘철수뿐이다’로 붙여써야 한다.

③ 시간 경과를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쓴다. → 떠난 지.

④ 애쓴 만큼 : ‘애쓰다’ 동사에 관형형 어미 ‘ㄴ’이 붙은 다음에 오는 ‘만큼’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써야 한다.

⑤ 김영희 여자: 호칭, 직책 등은 반드시 띄어써야 한다.

10. 정답 ①

① 종이 한 연: 전지 500장이다. <참고> 가리 : 곡식이나 장작 따위의 더미를 세는 단위. 한 가리는 스무 단이다.

<해설> ② 바리: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 ③ 거리: 오이, 가지 50개 ④ 손: 생선 2마리 ⑤ 쾌: 북어 20마리

11. 정답 ③

③의 경우: ‘따르릉 소리에 잠이 깼다’이므로 ‘따르릉’ 다음에 오는 말이 ‘소리’라는 명사이므로 이 경우 ‘부사’인 ‘따르릉’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쓰였다.

<해설> ① 왁다글닥다글: ‘부딪치며’ 동사를 꾸민다. ② 철썩: ‘때렸다’ 동사를 꾸민다. ④ 영영 : ‘울었다’ 동사를 꾸민다. ⑤ 줄줄 : ‘흐른다’ 동사를 꾸민다.

12. 정답 ④

진림의 화살 비유는 자신은 ‘화살’이며 화살은 ‘시위’ 즉 ‘주군’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이다. 격문을 쓴 당시, 자신은 ‘원소’란 ‘시위’에 올려진 이상 ‘원소’를 위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뒤에 조조의 ‘화살’이 되어주겠느냐는 말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13. 정답 ⑤

㉠ 서정주 <추천사> : 주제 - 현실 초월의 갈망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주제 -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좌절감

<해설> 두 시 모두 현실 자체에 갈등을 느끼고 있지만, 쉽게 그 현실을 떠나지는 못하고 있다.

14. 정답 ㉣

㉠ 전향자 ㉡ 수용 ㉢ 인정 ㉣ 승리 : 새로운 자연과학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 기대 :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15. 정답 ②

| 발음기관 | 설 명                    | 예 시        |
|------|------------------------|------------|
| 아음   | 혀뿌리가 목을 막는 소리(설근폐후지형)  | ㄱ, ㅋ, ㅇ    |
| 설음   | 혀끝이 윗잇몸을 막는 소리(설부상악지형) | ㄴ, ㄷ, ㅌ,   |
| 순음   | 입 모양(구형)               | ㅁ, ㅂ, ㅃ, ㅍ |
| 치음   | 이빨 모양(치형)              | ㅈ, ㅉ, ㅊ    |
| 후음   | 목구멍 모양(후형)             | ㅇ, ㅎ       |

16. 정답 ①

<나도향>의 수필 <그믐달>이다. (가) 다음에 이어질 글은 그믐달과 대조되는 초승달과 보름달이라야 한다. (마)의 마지막 행에 ‘초승달이나 보름달’이라는 구절이 있으므로 초승달과 그믐달을 대조한 (라)가 먼저 나와야 한다. 전체 결론은 (다)라야 하므로 답은 ①이다.

17. 정답 ③

|   |
|---|
| <p>&lt;알은체하다=알은척하다&gt;<br/>         ㉠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임 (예) 내가 아무리 말해도 철수는 <u>알은척도</u> <u>않고</u> 자기 고집만을 내세웠다. ㉡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지음. (예) 다음에 만나 <u>봐라</u>, <u>알은척이나</u> 하나.</p> |
|---|

<해설> ① ‘임신을 하다’는 의미로는 ‘홀몸이 아니다’로 쓴다. ② ‘후송’은 ㉠ 적군과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 부상자, 전리품, 포로 따위를 후방으로 보냄. ㉡ 뒤에 보냄 : ‘빨리 보내다’는 내용으로 보아 ‘후송’은 맞지 않다. ④ ‘유래(사물,일이 생겨남)’를 ‘같거나 비슷한 예’를 뜻하는 ‘유례’로 고쳐야 한다. ⑤ ‘불을 붙이다’는 뜻으로는 ‘댕기다’로 써야 한다.

18. 정답 ③

지문의 내용은 생김새를 말하는 ‘묘사’ 기법이다. 보기 ③도 ‘매미의 울음소리를 관찰한 기록’이므로 ‘묘사’이다. 풍경,얼굴 생김새,관찰기록은 묘사기법으로 봐야 한다.

<해설> ① 공통점으로 설명 : 비교 ② 차이점으로 설명: 대조 ④ 사건을 설명: 서사 ⑤ 종류를 설명: 분류

19. 정답 ④

④ 遷至(쉬일 답,이를 지) - 刮目(비빌 괘,눈 목) - 歪曲(비뺏 왜,굽을 곡) - 洞察(뚫을 통, 살필 찰)

<해설> ① 破綻(깨다 파, 터질 탄) ② 懈怠(게으를 해,게으를 태) ③ 叱責(꾸짖을 질,꾸짖을 책) ⑤ 看倣(볼 간,하다 주)

20. 정답 ⑤

<빼앗긴 것을 엇디하리잇고>의 향찰문자 분석

| 奪     | 叱     | 良    | 乙   | 何    | 如   | 爲    | 理    | 古   |
|-------|-------|------|-----|------|-----|------|------|-----|
| 빼앗을 탈 | 꾸짖을 질 | 어질 량 | 새 을 | 어찌 하 | 다 여 | 하다 위 | 이치 리 | 옛 고 |
| 훈차    | 음차    | 음차   | 음차  | 훈차   | 훈차  | 훈차   | 음차   | 음차  |

21. 정답 ④

|        |                                     |                    |
|--------|-------------------------------------|--------------------|
| 절대적 시제 |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됨.<br>문장의 종결형에서 결정되는 시제 | (예) 철수를 보았다: 과거시제  |
| 상대적 시제 |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됨.<br>관형형에서 결정되는 시제     | (예) 책을 읽는 철수: 현재시제 |

22. 정답 ③

가시버시: ‘아내’를 뜻하는 ‘가시’와 ‘남편’을 뜻하는 버시가 합쳐진 말이다. ‘부부’를 낮춰서 하는 말이다. ‘가시’는 ‘각시’와 연관이 있는 말이다.

<참고> 가시: ‘아내’ 또는 ‘아내의 친정’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가시아비(장인),가시아미(장모),가시집(처가)

23. 정답 ①

① 여자(女子), 유대(紐帶) : 두음법칙이 적용된 말. 그러나, ‘여유’의 ‘여’는 ‘나머지 여’란 한자어로 두음법칙이 적용된 말이 아니다.

<주의> 노력(努力), 열정(熱情), 연유(緣由) :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말이다.

② 모음조화가 적용된 말이다.

③ 바느질(바느질), 소나무(솔나무), 따님(딸님): 모두 ㄹ탈락 현상이 일어난 말이다.

④ 구개음화 현상이 적용된 말이다. [해도지/ 구지/ 마지]로 발음한다.

⑤ 자음동화현상 중에서도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경우다. [밤물/ 섬니/ 궁민]으로 발음한다.

24. 정답 ④

④ 일찍, 오래오래 : 부사 / 그러나, ‘신나게’는 ‘신(명사)+ 나다(형용사 접사)’= 형용사가 활용된 말이므로 ‘형용사’이다. 어미가 붙어 활용되는 말은 동사,형용사이지 부사가 될 수 없다.

25. 정답 ⑤

‘주변국(무정명사)+ 에(무정명사 뒤에 붙이는 조사)’로 적절하다.

<해설>

① 주술 구조가 맞지 않다. 주어가 ‘지구’이므로 서술어에는 ‘걸렸습니다’가 적절하다.

② ‘보면’이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하다. → ‘창세기를 보면’으로 고치자.

③ ‘돌리다’는 말이 ‘방향을 바꾸다’는 의미일 경우 ‘~으로 ~을 돌리다’로 써야 한다. 그리고 ‘여력’이 어떤 여력인지가 정확하지 않다.

→ ‘부채비율 축소나 계열사 정리 등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재벌이 공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로 고치면 된다.

④ 조사에 문제가 있고, ‘의결하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이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고치자.